

光日春秋

정 종 섭



작년 연세대병원에서 있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둘러싼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환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매일 같이 발생함에도 그동안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있고 나서도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가이 드라인도 없어 병원측은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몰라 항소를 하였다.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역시 환자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인간의 생명 존중과 인공호흡기의 제거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는 각 나라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 전통, 삶의 방식, 죽음에 대한 시각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어느 한쪽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

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죽음에도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고통받는 환자로 하여금 존엄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존엄사’ 사회적 합의 찾을 때다

이러한 행위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안락사(安樂死)라고 하고 이러한 안락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지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 비난받지 않으려면 인간의 생명 존중을 외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은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인간의 생명도 존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하여 있을

것, 둘째,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의 의사가 있을 것, 셋째,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은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할 것, 넷째, 치료중단의 시행은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 그것이다.

첫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주치의의 의견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판단된다. 주치의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오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셋째 조건도 매우 엄격하여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하여 이 환자에게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상세한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다. 법원도 현재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행동기준은 제시되었지만, 실행방법을 근거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매 사건마다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것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는 일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과 이를 우리 사회에 공문화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참작하여 이번 법원의 판결보다 더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전국의 각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매일같이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법 작업을 하루바삐 착수하고 사회공문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이는 어느날 갑자기 법안을 제출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거나 마냥 미루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주시·전남도, 부패방지 노력 펼쳐라니

광주시와 전남도, 전남도 교육청이 부정부패 방지에 가장 '깨끗' 것으로 나타났다. 두 광역자치단체와 전남도 교육청이 부패방지 시책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말미 '미흡'이지 사실상 전국 꼴찌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해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부패척결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었던 대가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노력도 ▲반부패 시책의 효율성과 적절성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조사해 '2008년도 반부패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5개 기관 중 하위 20%에 속해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 2곳이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와 전남도가 부패방지에 소극적인 것은 불명예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광역 자치단체들이 '부패와의 전쟁'에 발맞고 나선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시정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2008년을 '부패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올인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금역의 다과에 관계없이 직위를 해졌다.

경기도 역시 '금품·향응 제공품 0'을 목표로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장 높은 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정부패는 지방경쟁력을 잠먹는 요인이자 고치기 힘든 공직사회의 대표적 인고질이다.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부패의 독버섯이 자랄 수 없는 청정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루빨리 '부패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극심한 취업난에 우울한 대학 졸업식

요즘 졸업 시즌을 맞아 대학문을 나서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한창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들의 뜻을 펼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백수'로 전락하는 현실이 암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지역 대학의 올 취업률은 10~20%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단 1명의 취업자도 배출하지 못한 학과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청년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계속되는 대학 졸업식으로 청년 백수 14만 명이 새롭게 양산된다. 졸업자 4명 중 1명 꼴이다. 고학력 미취업자가 급증하고 대졸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시대적 상황을 빚낸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20대 청년이 1년간 실업을 겪으면 평생 2억8천만 원을 손해 본다는 분석이

다. 우리 대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률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10개월짜리 청년 인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대졸 초임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용이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해 실업자 직업훈련 및 기업의 고용유도, 공공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인 실업대책을 내놓기보다 노사정간 합의 등 사회 전체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청년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눈높이를 낮춰야 함은 물론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권 용 수



때 이른 황사가 우리나라에 불어와 지난 20일 오후 첫 황사 경보발령이 내려졌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날아오는 먼지 현상이다. 자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대개 일상적 자연현상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함께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사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황사 먼지의 크기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지만 3~1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크기가 가장 많이 콧속에서 걸러 지지 못하

이 또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눈이 아프고 충혈되는 증상이 가장 많고 목이 따가운 증상이 다음으로 많아서 눈과 호흡기에 피해를 많이 준다.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가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관지염, 천식의 악화,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어 기침, 가래, 목 아픔 등 기관지염의 증상과 재채기, 코막힘, 맑은 콧물 등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 황사 먼지가 피부에 남으면 가려움증과 따가움, 심한 경우 발진이나 발열, 부종

건강 불청객 '황사'

고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허파 파리기까지 침입이 가능하다. 황사의 대기 농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PM10(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 10마이크론 이하의 분진의 농도)이라는 대기분진을 측정하는 기준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이 70 μm/m2이고 24시간 평균이 150 μm/m2이다. 황사가 있을 때 PM10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경우가 많아 1000 μm/m2를 넘기도 한다. 올해 첫 황사경보가 있는 20일 낮 12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641 μm/m2, 광주가 247 μm/m2이었다. 황사 먼지의 크기와 농도뿐만 아니라 황사가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사먼지에는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함께 날아올 수 있어

으로까지 이어지는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황사에 의한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황사가 있는 날은 창문을 닫아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황사에 의해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의 악화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은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용 안경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천식환자는 평소 사용하는 유지약제를 꼭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응급기관지확장제를 소지하도록 해야 하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나 안약, 비강분무제, 흡입제 등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기 고

문 봉 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일컬어져 왔다.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방방곡곡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이다. 한반도 어느 곳을 파든지 우물이 나오는데 '물부족 국가(1인당 물 사용 가능량 1,000~1,700m³)'로 분류했으며, 2025년에는 물은 1,327m³, 적게는 1,199m³가 될 것으로 분석하는 등 갈수록 물 사정

성이 있다고 분류된 소독부산물질 2개 항목을 추가하여 법정검사 5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가 필요한 물질로 정해진 환경부 감시항목 22개와 우리시 자체감시항목 46개 등 총 125개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 항목 중 수도물의 대표적 이취·미물질인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 냄새) 등 2개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여 먹는 물에 대한 심미적인 기호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시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강우량 감소로 인한 갈수기를 겪고 있고 가뭄으로 인한 수량은 물론, 저수량 감소와 집중강우로 인한 수질변화로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수와 수도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하는 '2009년도 수도물 수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당초 67개 항목에서 환경호르몬물질인 DEHP와 중금속류인 안티몬을 추가하여 총 69개 항목으로 강화하고, 갈수기(12월~4월), 수환경변화기(4월~6월), 조류에 보기가 등 수질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이상 수질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발암가능

공급과정별 수질검사와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를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지역별로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순회 수질검사를 하고 현장에서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수도물 수질확인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도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발간·배포할 계획이며, 정수장 등 58개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수질검사와 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상수도모니터요원의 수질검사 참여, 상수도시설 견학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시에서는 상수원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관리해 안전한 수도물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는 일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아이들 책값 회사마다 제각각...신뢰 떨어져 구매의욕 상실

여동생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길래 선물을 해주기 위해 책을 알아봤다. 그런데 그 가격에 허가 내뒀다. 66권짜리 읽기 책이 무려 980,000원이었고 85권짜리 역사 전집이 무려 1,126,000원이 나왔다. 책을 살일수가 나지 않아 영업사원과 전화통화 중 살수 없다며 끊으려 하자 그쪽에서는 전집 가격을 책정된 정가보다 2배 정도 싸게 팔수 있다며 즉석에서 값을 깎아서 제시하는게 아닌가. 싸게 살수 있다는 사실에 귀가 번쩍 띄어 가는 했지만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값이 다운이 될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속는다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연락처만 받아놓고 다른데 전화를 걸어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기서 똑같은 제품을 먼저 통화했던 곳보다 더 싸게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게 아닌가. 책을 판매하는 판매처와 판매를 담당하는 사원에 따라 제각각인 가격, 책에 대해 적절히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소비자들은 잘못 걸리면 뽀빠 바가지로 쓰게 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요모조모 따지고 살펴보는 사람들만 옳게 싸게 구입하는것이니 이런 책값이 너무나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남성 성 상품화 하는 미디어, 심각성 깨달아야

요즘 TV의 개그프로나 연예 오락프로를 보면 남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이 너무 난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중매체 속에서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묘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실태에 대한 지적과 반성은 많았지만 남성에 대한 비열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관대하고 무감각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자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든가 "바람직한 기력지" "그 얼굴로 어딜 들

이대?"라는 식의 말들은 너무나 모욕적인 성차별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드라마의 흐름과 관계없이 남성의 몸매를 드러내는 장면이나, 오락프로그램에서 '남자답지 못한'을 희화화하는 경우도 그렇고, 남성도 외모가 최고라는 식의 자막들도 적잖다. 한때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제제기 소지가 덜한 남성이 희화화되는 현상이 커진 부작용 아닌가 한다. 앞으로 반성하고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곡동>

無 等 鼓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는 가장들이 많다. 가구당 평균 4천128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금융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국가부도→기업 도산→실직→가계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다.

미국발 '제2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적인 스트레스(stress)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를 압박하는 스트레스는 부부싸움, 자살,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당하면 활력 소다. '마감 증후군'(Deadline Syndrome)이 대표적인 예다. 내내 집중되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 글이 잘 써지거나 시험 전날 하는 공부도 쑥 들어오는 경우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감이 생명이라는 기자의 뇌에 호르몬과 뇌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달았다. 그 결과 마감이 가까울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크게 올라 평상시 배를 넘어섰다. 스트레스가 고도의 집중력을 자극해 비라키치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스트레스는 100년 전 만해도 교량 케이블 같은 구조물이 압력으로 뒤틀리는 현상을 말하는 공학용어였다. 이를 생물학 용어로 차용한 사람은 1930년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 박사이다.

경제학에서도 스트레스는 중요한 관찰대상이다. 경제주체가 극단적인 경제여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우리는 지난날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서 앞서 채권은행들이 기업 빌 상태를 평가한 바 있다.

미국 정부도 25일 앞두고 마감 직전에 글이 잘 써지거나 시험 전날 하는 공부도 쑥 들어오는 경우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감이 생명이라는 기자의 뇌에 호르몬과 뇌파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달았다. 그 결과 마감이 가까울수록 교감신경 활성도가 크게 올라 평상시 배를 넘어섰다. 스트레스가 고

스트레스 테스트



부터 대형은행 18곳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들어갔다. '실업률 12%, 주택가격 하락 20%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지를 본다. 테스트 결과는 은행 국유화를 위한 '살생부'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계든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때다.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어문제작부 2200-67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 1부 2200-427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2>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